

롯데케미칼, 해초지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2027년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거머리말 군락지 약 0.1ha 복원 지원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연구 후원도

롯데케미칼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처인 해초지(거머리말 군락지) 복원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케미칼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 금오도 연안에 약 0.1ha(헥타르) 규모



3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왼쪽)과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의 거머리말 군락지 복원 사업을 2027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지정한 관심필요종인 ‘거머리말(해조)’ 약 1만주를 심고,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연구를 후원한다. 거머리말은 수질 정화 기능 등 해양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총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년도에는 적지조사를 바탕으로 복원후보지를 선정하고 거머리말을 이식하는 ‘기초 생태 기반 마련’, 2차년도에는 복원지 내 해양쓰레기 등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복원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생태 회복의 안정화’, 3차년도에는 복원지 사후관리 및 해양 생물종 조사 및 연구 등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과정을 진행한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기보, 111명 ‘신입직원 입사식’ 열어

기술보증기금이 4일 신입직원과 가족, 임직원이 함께하는 ‘2025년 신입직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직무능력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명을 선발했다.

/기보



NC AI, 대통령·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NC AI는 이연수 최고경영자(CEO·왼쪽)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김민재 최고기술책임자(CTO·오른쪽)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인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NC AI



기아 ‘PV5’, 엡 왓 밴 어워즈 수상

기아는 영국 상용차 전문 매체 ‘왓 밴’(What Van)이 주관해 ‘2026 왓 밴 어워즈서 PV5 카고 모델이 ‘올해의 밴’ 및 ‘올해의 콤팩트 밴’ 부문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PV5는 지난해 ‘2025 왓 밴 어워즈’ 주목할 모델’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왓 밴 어워즈에리며 다시 한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



귀뚜라미-가스안전공사, 연합 봉사활동

귀뚜라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제19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주제로 서울시 강서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일대에서 각각 진행한다.

/귀뚜라미

효성중공업, ‘1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효성중공업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민솔 인턴기자

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제품 신뢰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압변압기 ▲리액터 ▲차단기 등 전력기기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진출한 이후 스위덴·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효성중공업의 독보적 기술력과 토털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 ‘헬로 미디어 캠프’ 성료

LG헬로비전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 헬로 미디어 캠프 — AI로 그린 로컬’ 영상제 시상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인천 지역 초·중·고 6개교 43명의 학생이 참여해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 AI 활용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했다.

이번 영상제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인천서창초등학교의 ‘친구가 필요해’가 LG헬로비전상을 수

상했다. 지역을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시선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계절과 지역 배경을 생생한 AI로 완성도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작품에는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담아낸 연출도 포함됐다.

올해 헬로미디어 캠프에서 완성된 총 12편(목표 5편, 인천 7편)의 영상은 헬로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HK이노엔, ‘韓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상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

HK이노엔은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열렸다.

‘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받고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지난 2014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11년째 지속하고 있다. 임직원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K-CAB)’이 있다.

HK이노엔은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 창출 역량도 높였다.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2014년 약 50건에서 2017년 약 150건으로 3배 성장했다. 또 2019년 직무발명제도 개정 전 누적 특허건수 516건은 개정 후 628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특허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내·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무발명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허 출원·등록뿐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보상까지 지원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SK그룹 <SK이노베이션 계열> △강태욱 △김중하 △이규혁 △이상훈 △지미연 △김영수 △이재열 △한성진 △이덕환 △이주환 △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김도식 △박영욱 △우병훈 <SK온> △장철형 <SK하이닉스> △강봉길 △강부석 △강상철 △강영석 △고한석 △구인재 △김병렬 △김승호 △김영승 △김태한 △김판선 △김현석 △박노혁 △박사로한 △박석상 △박준덕 △박한울 △백영환 △손경배 △손윤익 △양명훈 △윤영우 △이민영 △이주석 △이희진 △임병용 △장경철 △정성훈 △정지현 △조윤정 △지해성 △채원태 △한혜승 △함동균 △홍명일 △황무연 △황인태 <SK텔레콤> △김석원 △김우람 △김태희 △신상민 △안홍범 △정형철 △최종복 △최훈원 △이정민 <SK브로드밴드> △김영범 △박상

훈 △신범식 <SK에코플랜트> △김상헌 △김연주 △김은경 △김정훈 △이동규 △이상협 △박영훈 △선병학 △김창기 <SK네트웍스> △민복기 △이경렬 △최현규 <SK스퀘어> △소영환 <SK케미칼> △정지호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신원식 <SK㈜ AX> △곽희석 △권종민 △남주현 △백승환 △정제원 △조기수

◆ 대한항공 ◇전무 승진 △김해룡 △서호영 ◇상무 승진 △구은경 △이상훈 △박관영 △박병준 △정웅 △박철형 △김성열 △박세진 △강재영 △김일찬 △황성원 △김성진 △이건영 △김지수 △김동연 △민경모 △김창훈 △길기남

◆ 진에어 ◇승진 △박병률 부사장 ◇신규 선임 △이정철 상무(DT전략실장)

우리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복지증진 나서

사학연금공단과 ‘맞손’

우리은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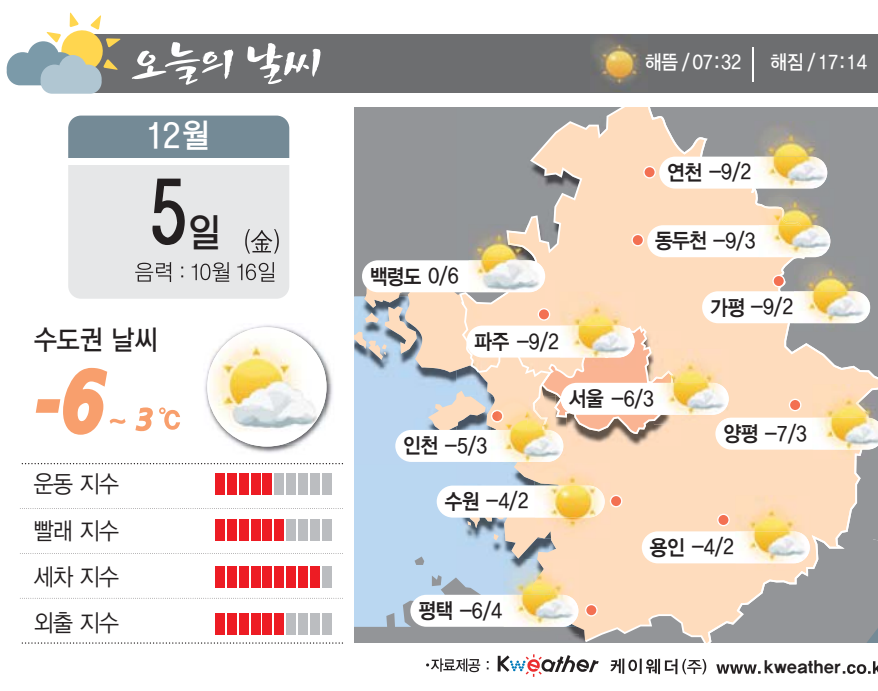
이날 양사는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중장년 교직원까지 우리은행의 연금 및 금융 전문가 금융 컨설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팅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동화기업-영양군, 산불 피해목 재활용

동화기업은 지난 3일 경상북도 영양군과 산불 피해목을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김철주 동화기업 팀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화기업